

거대한 화강암괴 사이로 무르익은 가을

옛 사람들은 산에 올라와 곧잘 바다를 연상하고, 상상의 배를 띄워 비유했다. 일찍이 도선 국사는 한반도를 거대한 한 척의 배(行舟形局)에 비유하고, 백두대간이 내려오는 동쪽은 무겁고 서쪽은 가벼워 배가 기울 것을 염려해 서쪽에다 많은 짐과 탑을 세우게 했다 한다.

원효의 신라고찰 관룡사를 품은 경남 창녕 관룡산은 무명의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가는 거대한 반야용선(般若龍船) 형국이다. 미혹의 거친 고해(苦海)를 헤치고 나갈 길잡이는 오직 반야지혜, 그 산중턱에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용선대가 돛대처럼 아슬아슬이 솟아있다.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를 벗어나면 왼편 장박으로 해발 1084m의 달성 비슬산을 비롯해 검푸른 아고산대가 웅장한 꿈을 거머쥐어 지나간다.

가야인들은 일찍이 이 거대한 산줄기를 담장으로 삼고 낙동강의 비옥한 충적평야에 나라를 세우고 고유한 문화를 일구었으나, 6세기 후반 신라 진흥왕에 의해 흡수되고 만다. 원효 대사가 그 산골짜기에 관룡사(觀龍寺)를 앉힌 것은 그리고 20여년 후의 일이다. 가야 유민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룡사는 사하촌이 멀어서 좋다. 사하촌 버스 정류장에서 관룡사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다. 포장된 도로 옆으로 계곡이 넓다. 2003년 매미 태풍은 여러 인명을 앓아 가고도 모자라 관룡사 계곡과 계성천 상류 지역을 쓸대밭으로 만들었다. 산사태로 엉망이 된 계곡을 복구하면서 자연생태복원까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 계곡을 온통 바위로 층층이 쌓아 자연미를 잃어버렸다.

관룡사 영역은 한 쌍의 장승이 서 있는 장승백이부터 시작된다. 예전에는 모두가 장승 앞을 지나갔으나, 지금은 사람이나 자동차나 모두 따로 난 길로 다닌다. 관룡사 주변 생태탐방 구간은 장승백이에서 시작하여 관룡사-용선대-관룡산 정상-청룡암-관룡사로 돌아오는 원전회귀형 코스가 무난하다. 역세로 이름난 화왕산까지 관룡사 행국으로 걸어간기에는 거리가 멀다.

관룡산은 소나무가 우점하지만, 계곡과 관룡사 주변은 활엽수들이 우세하다. 10월 말, 능선부 쪽으로는 단풍 기운이 감돌고 있으나 아래쪽은 아직 잎들이 푸르다. 쇠물 푸레는 낙엽활엽수 소교목으로 주로 산자락 계곡 주변에서 자란다. 나무 높이는 10m 미만이며, 나무껍질은 매끄러운 회갈색이다. 재질이 단단해서 가는 가지들 휘어



고추잠자리.



왕철노린재.

서 소의 코뚜레를 만들기도 했다.

관룡사에 이르면 돌계단 끝에 산사의 정취를 물씬 풍겨주는 아름다운 돌문이 서 있다. 예전에는 이 돌문이 일주문이었다. 지금은 사천왕문이 산문을 대신하고 있다. 천왕문 처마에 걸린 현판의 '화왕산(火火山)'은 근원이 분명치 않다. <관룡사사적지>와 <국역지승람>에 나타난 '火火山'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좋겠다. 내친김에 '관룡사'나 '구룡사'로 고치는 것은 어떨까... 마사토가 깔린 절 마당에 서면 대웅전 뒤로 구룡산(九龍山)의 기암괴석이 관룡사를 감싸 안는 자세로 병풍인양 둘러쳐져 있다. 전설에 원효 대사가 관룡사 터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던 중 아홉 마리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하여 절 이름을 '관룡사'라 짓고, 뒷간을 구룡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구룡산은 거대한 화강암괴로 이루어져 있다. 암릉의 모습이 마치 용의 갈기처럼 사납고 거칠다. 기암절벽은 모두가 탁상형의 토어(ton)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수직절리가 치밀한 암석단면을 이루고 있다. 토어(ton)는 '뾰바로 서있는 석탑'이라는 뜻을 어원으로 하고 있다. 용선대도



굵게 물든 담쟁이.

붉게 단풍 든 구실사리들 암벽 곳곳서 발견 관룡산 중턱 용선대 위엔 석가모니불 정좌

토어의 한 형태이다. 토어는 주로 빙하작용에서 일어난다. 즉, 화강암 틈 사이에 눈비가 얼어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절마당에서 보는 구룡산을 관룡산으로 알지만, 관룡산은 암릉 일대로 몇 백 미터 더 나아간 곳에 자리하고 있다. 관룡사의 가람배치는 대웅전이 네모난 마당을 두고 원형각과 마주하고 있는 중정형(中庭形)이다. 대웅전 수미단에 연꽃, 새, 개, 물고기 등등 다양한 사생(四生)이 조각되어 있다.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등 이 세상 네 종류의 모든 생체가 부처님이라는 생령 또는 진리에서 생겨났음을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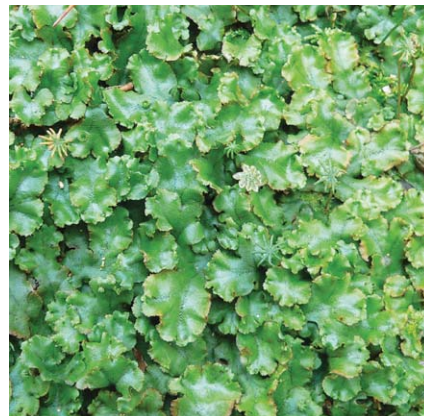
경내에는 곶감나무와 모과나무를 비롯해 몇 그루의 과실수가 조경수를 대신하고 있다. 곶감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다. 나무껍질은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감나무,

말채나무와 함께 독특한 모양을 갖는다. 주로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으로 쓰이지만,

절에서는 서리가 내린 뒤 곶감을 따다가 햇볕에 말려 노스님들의 겨울 입가심거리로 내놓았다.

담쟁이덩굴이 굵게 단풍들고 있다. 담쟁이덩굴은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덩굴식물이다. 줄기에서 기근이 나와 바위나 나무에 붙는다. 봄에 잎이 나기 전에 가지를 잘라 꺾꽂이(삽목)를 하면 어디든 잘 산다. 절에서도 활용을 잘 하면 쓰임새가 많은 나무이다.

명부전 뒤에 우산이끼가 웅덩이처럼 깔려 있다. 우산이끼는 암모니아 성분이 많은 곳에 잘 자란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흔하게 관찰된다. 암수 단 그루로 알그루는 우산의 살만 남아 있는 모양이며, 수그루는 완전한 우산 모양이다. 암수 모두 햇뿌리로 이루어져 있다.



우산이끼.



곶감나무.

먹는 데도 한몫을 해준다.

용선대는 화강암 방상절리(方狀節理)가 만들어낸 천애의 절벽이다. 그 위에 석가모니불이 정좌하고 있다. 옛 승사들은 관룡사의 형국에서 좌청룡에 비해 우백호가 허약하다고 보고, 그 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용선대에 부처님을 모셨다고 전한다.

관룡산은 소나무 산이다. 가을이면 소나무도 단풍이 든다. 숲은 2년이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진다. 숲방울도 2년이면 떨어져서 숲색을 날린다. 가을이면 관룡산 소나무들은 밤아래 송이를 키운다.

정상까지는 계속 가파른 길이다.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소나무군락은 흩어지고 산길나무 군락을 비롯하여 물오리나무, 비목 등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둘러 단풍이 든 개울나무를 비롯하여 산초나무, 싸리, 털진달래 등이 관목층을 구성하고 있다. 개울나무는 낙엽지는 소교목으로, 줄기는 밑에서 2-3개 올라온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다. 작은 가지는 방사선으로 뻗고, 그 가지에 잎이 어긋나기로 13-17장 달린다.

관룡산 정상은 심기가 그지않다. 돌담도 표시도 없이 험기중에 방황표지만 서 있다. 왼쪽으로는 화왕산까지 능선으로 이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구룡산 암릉으로 이어진다. 화왕산은 드넓은 분지 초원에 역새들이 수만평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관룡산 쪽에는 역새를 거의 볼 수 없다.

구룡산 암릉길은 영취산을 지나 온천마을인 부곡으로 이어진다. 구룡 같은 화강암 바윗길 아래로 관룡사가 아슬라하게 내려다보인다. 암벽 사이사이에 천년송들이 분재처럼 키를 낮추고 있다. 암벽 곳곳에 구실사리들이 벽에 붙어 붉거나 누르거나 서 있다. 암벽이끼는 암모니아 성분이 많은 곳에 잘 자란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흔하게 관찰된다. 암수 단 그루로 알그루는 우산의 살만 남아 있는 모양이며, 수그루는 완전한 우산 모양이다. 암수 모두 햇뿌리로 이루어져 있다.

관룡산의 포유류는 다람쥐와 청설모 등 초식성이 많다. 잡식성으로는 너구리와 멧돼지 등이 주민들에게 관찰되고, 육식성으로는 대륙족제비와 삺 등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족제비 종류는 주로 풀이 있는 골짜기에 서식하면서 개구리, 집쥐, 들쥐 등을 잡아먹고 산다. 관룡사 사하촌 도로변에 자동차에 치어 죽은 족제비가 관찰되었다. 청룡암 아래쪽에서 멧돼지들이 설치고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관룡산의 포유류는 다람쥐와 청설모 등 초식성이 많다. 잡식성으로는 너구리와 멧돼지 등이 주민들에게 관찰되고, 육식성으로는 대륙족제비와 삺 등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족제비 종류는 주로 풀이 있는 골짜기에 서식하면서 개구리, 집쥐, 들쥐 등을 잡아먹고 산다. 관룡사 사하촌 도로변에 자동차에 치어 죽은 족제비가 관찰되었다. 청룡암 아래쪽에서 멧돼지들이 설치고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관룡산의 포유류는 다람쥐와 청설모 등 초식성이 많다. 잡식성으로는 너구리와 멧돼지 등이 주민들에게 관찰되고, 육식성으로는 대륙족제비와 삺 등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족제비 종류는 주로 풀이 있는 골짜기에 서식하면서 개구리, 집쥐, 들쥐 등을 잡아먹고 산다. 관룡사 사하촌 도로변에 자동차에 치어 죽은 족제비가 관찰되었다. 청룡암 아래쪽에서 멧돼지들이 설치고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cafe.daum.net/templeeco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체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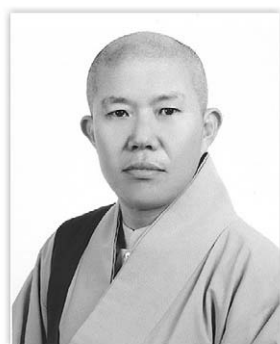
● **신입상도통사**: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형, 전생치유법, 내생체형,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형,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풀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신치유의통사**: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神 입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들어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기가 빙의 되어 눈에 뻤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 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7057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